

# “교내 휴대폰 사용 자유화 반대”

## 전국 초중등 교사 96.9% 반대 71.8% “상벌점제 폐지 반대”

교사 10명 중 9명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10명 중 7명은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점을 주고 칭찬받을 행동을 하면 상점을 준 후 누적된 점수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사 16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인식 모바일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교사 대부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는 주장에 대해 응답 교원의 96.9%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교내 휴대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도 더 어렵게 한다”(44.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습과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집중을 방해한다”(41.6%), “다른 학생의 온전한 수업을 방해한다”(11.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응답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벌점제 폐지 여부에 대한 물음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1.8%에 달했다. “찬성한다”(22.3%)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상벌점제는 2010년 서울 시교육청이 제1회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이를 대체할 생활지도 수단으로 각 학교에서 활용돼 왔다.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교육문화를 만들어야 한다”(37.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안도 없이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6.5%), “학생생활 지도를 위한 최후의 수단”(8.1%)이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상벌점제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는 “학생들 스스로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5%)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점수화하는 것이 교육과 맞지 않다”(6.8%), “제도의 실효성이 약하다”(5.8%)는 응답 순이었다.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학생생활지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7호 삭제와 관련, 응답교원의 93.2%는 반대했다. 찬성은 5.4%에 그쳤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항 삭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규칙으로 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37.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36.1%), “학교 내 생활지도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다”(20.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와 반대로 찬성하는 이유로는 “검사나 제한 등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해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2.3%), “학생 인권 침해다”(1.9%), “시대에 뒤떨어졌다”(1.0%)는 응답이 나왔다.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94.2%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최근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 중인 교내 휴대폰 사용 허용과 상·벌점제 폐지 움직임과 정면 배치된다”며 “내일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근거 조항 폐지’ 역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관련 조항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관련 조항이 폐지돼 학생 생활지도가 무력화되면 교육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교육감들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입맛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 오차는 ±2.42%포인트다.

뉴시스



눈보라 헤치며 달리는 열차 호남 지방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 중인 10일 오전 열차가 눈보라를 헤치며 보성군 명봉역을 지나고 있다.

## 광주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출범

###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광주지검(검사장 양부남)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관행적·형식적 상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상고권 행사 여부를 점검,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에 고통이 가중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검찰은 설명했다.

심의위원으로는 변호사와 대학교

수 등 22명을 위촉했다. 전문성과 함께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들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검찰 출신 위원은 2명으로 제한, 객관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매주 1회 1심·2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된 사건과 일부 무죄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상고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광주지검은 상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공정한 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양부남 지검장은 “검찰은 진실규명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며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것 못지 않게 형식적인 상고로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 돼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밀하게 심의해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주춘정 기자



## 이란 유조선 사고 “대규모 석유 유출 없어”

중국 동부 해안에서 충돌 사고를 낸 이란 유조선이 닻채져 불길에 휩싸여 있다. 현재까지 해상에 유출된 석유는 많지 않지만 선박이 폭발하거나 침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상하이 동쪽 267km 해상에서 홍콩 어선과 충돌한 유조선 산차(SANCHI)호에서는 아직까지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1명이 사망했고 31명의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구조선들은 강풍과 유독가스라는 악조건 속에서 주변 3200km를 대상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조선에는 한국 한화토탈에 인도할 예정이었던 초경질유 100만 배럴이 실려 있었다.

현재까지 석유 유출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교통부는 전날 오후 6시까지 대규모 석유 유출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초경질유의 경우 외부로 유출돼도 빠른 시간 안에 증발되기 때문에 잔류물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고 교통부는 설명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초경질유가 5시간 동안 해상에 유출돼도 1% 미만의 해수면에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체에 계속 불길이 남아 있고 강한 비바람과 파도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사고 수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우려된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제주도에서 남서쪽으로 3000여km 떨어진 지점이다.

일각에서는 화재가 1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배가 폭발하거나 바다에 가라앉으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SCMP에 “이전 유류 사고를 감안해 불뎠을 길 2주에서 1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배가 가라앉아 범커유가 바닷물을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캘리포니아 산사태로 최소 13명 사망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폭우와 대형 산사태로 현재까지 13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캘리포니아 남부 샌타바버라 카운티 몬테시토에서 집중 호우로 산사태가 나 대량의 진흙과 바위가 주거지역과 도로를 덮쳤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사태로 현재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직까지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데이트 제니보니 샌타바버라 카운티 소방관은 산사태로 가족 여러 명이 파손됐으며 주변 주민 상당수가 쓰러진 나무와 전선 때문에 고립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삼림이 소실된 상황에서 폭우가 내리 산사태를 불러왔다.

샌타바버라와 벤추라에는 이날 오후까지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가장 강우량이 많은 벤추라 북부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12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 새해 지중해서 이주난민 81명 사망·실종

올해 들어 지중해에서 이주 난민 8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국제이주기구(IOM)가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IOM 조엘 밀번 대변인은 새해 벽두부터 이주 난민을 태운 선박이 지중해에서 조난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8일간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지중해 루트’를 통한 도항은 그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새해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IOM은 지적했다.

IOM에 따르면 참사가 연달아 일어나는 곳은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루트를 지난 8일에는 이탈리아 앞바다에서 150명이 승선한 고무보트가 난파해 64명이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됐다.

희생당한 이주 난민은 주로 시에라리온과 말리 등에서 왔으며 어린이도 상당수 끼어 있다. 당시 이탈리아 연안경비선은 바다에 빠진 86명을 구조했다.

리비아 근해에서도 주말에 이주 난민선이 좌초하면서 12명이 사망했다.

밀번 대변인은 이주 난민 가운데 지중해를 무사히 건너 이탈리아·그리스 스페인에 도착한 사람이 약 45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159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치라고 밀번 대변인은 지적했다.

#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 남편은요... 양치로 죽어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으로 조기발견해서 수술도 받고, 이제 3개월에 한 번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놀치고 지내, 그래서 잇고 지내 시간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맘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영양아 건강검진

임 검진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간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1577-1000

**h-well 국민건강보험**

1577-1000